

군산시, 신규 인구정책 발굴 '속도'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실현 위해... 신규 인구정책 5대 분야 12개 정책 발굴 · 추진

군산시는 21일 2025년 신규 인구정책 5대 분야 12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키움옴 가족행복도시'라는 비전을 정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인구대응담당관 부서 신설과 함께 5대 전략 17개 과제 92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돌봄·교육, 자산형성, 일·가정양립, 주거, 외국인 등 분야를 나눠 담당 부서와 릴레이 회의 6회, 부시장 주재 전략회의 3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기도 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초등 저학년의 비인공지능 향상을 위한 초등 예체능 교육비 지원 △지역 아이들이 청년기 든든한 자립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군산아이 꿈씨앗 프로젝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온라인 신청 기능까지 구현할 온라인

육아종합포털 '키움의 명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군산아이 꿈씨앗 프로젝트'는 자산을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기에는 축하금으로 일부 지급도 가능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된다. △군산시 소재 사업장에 구직하는 관내·관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청년 면접 정당 대외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생활과 지역 정착 기반을 도와주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설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신설에 더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행 사업은 확대된다. 가장 호응도가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될 예정이고,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규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와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전북대병원 준공(2027년) 등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관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과 인구감소가 완화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군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자립하기까지 생애주기별, 분야별 정책이 빈틈없이 지원되어, 지역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구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2024년 9월 말 기준 25만8,264명으로 전년 12월 말 25만9,980명 대비 1,716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감소한 1,840명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농촌 여행,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인기

지난 7월부터 테마형 농촌관광 상품 운영...약 6000명 방문

지역 행사와 연계한 열차 상품으로 관광객 1000여명 유치



익산시 농촌 관광이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상품으로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테마형 농촌관광 상품에 6,000여 명이 참여했고, 지역 주요 행사와 연계한 농촌관광으로 1,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농촌 크리에이티브

(CREATOUR) 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익산 마한문화대전'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행사와 연계한 농촌관광 열차상품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테마형 상품은 △달콤 시원 메론과 시(時)의 만남 △산 멍! 바람 멍! 시

간 멍! 느낌 여행 △한여름 쿨(cool)한 힐링여행 △관백 숲 힐링 여행 등 10개로 농촌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배움, 재미, 휴식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상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다송무지개대화마을과 미륵산권역을 비롯해 국립익산박물관, 교도소세트장, 아가페 정원, 국화축제가 진행되는 중앙체육공원으로 이어진다.

농촌에서 진행되는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와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사전 예약부터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다. 마한문화대전에 이어 국화축제 상품도 매진되는 등 관광객들의 관심은 입소문을 타고 열차상품의 흥행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테마형 상품과 열차연계 상품이 관광객들에게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농촌관광 선도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하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7년 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상

익산시가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2017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해 1~6월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0월 18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www.iksan.go.kr)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소와 대출·재학 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발

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익산 청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7년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3,132명에게 총 1억7,900만 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체납자 4122명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절차 진행

익산시가 상납납부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법인을 포함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122명의 금융재산 조회하고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은 390억 7,400만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지난해 금융사에 증권 계좌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계좌정보를 요청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00여 명에 대해서는 예금관리전산망을 이

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구했다.

체납자의 계좌내역 정보 조회가 완료되는 즉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기준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익을 검토한 후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

시정소식지에 응원댓글 남기면 선물 증정

군산시가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카카오톡 친구추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 행사는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11월호 발간에 맞춰 진행한다.

기획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후 '열린시정 열린군산' 11월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구글 서류 양식을 이용해 신청하며 기존 친구도 참여가능하다.

이후 행사 참여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1월 14일 군산시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표되며, 상품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예

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시정소식지를 카카오톡채널에도 게시해 왔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번 기획 행사를 준비했고 앞으로는 매월 1회 시정소식지가 발행되면 카카오톡 친구들에게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시정소식지 발행을 알리기로 했으니 친구추가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톡채널을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획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5일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개최

군산시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5일 군산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군산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기업 창업 절차 등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강은 △사회적협동조합 김사합나의 김한희 대표가 소개하는 '폐기물인 커피박을 활용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환경, 고용,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 △사회적경제기업 창고스토리 김춘식 대표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업 확장,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공유 등으로 꾸려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24일 까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내 구글 서류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443-5437),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창업사회적경제계(063-454-4393)로 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내달 4~29일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익산시가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자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검사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승증 저울 △접시저울 저울 △판지저울 저울 △전기식 저울 등이다. 2023~2024년에 제작됐거나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교육·참고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행정복지센터, 전통신장 주차장, 종합운동장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과(063-8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